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 개막 홈쇼핑 형식 유튜브 시도

강원 춘천시 대표 축제인 막국수닭갈비축제가 온라인과 언택트를 접목한 '온택트'(On:contact) 형태로 열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유튜브 채널이나 온라인 커머스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춘천시와 축제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로 불투명했던 축제 개최를 두고 고민하다 기존 오프라인 형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방식으로 축제를 시작했다.

'새로운 막! 희망의 꼬끼오!'(부제: 2020 온택트 춘천을 감싸다)를 슬로건으로 한 올해 막국수닭갈비축제는 10월 16일부터 11월 8일까지 24일간 열린다.

이번 축제에서는 홈쇼핑 형식의 유튜브 라이브커머스가 도입됐다. 축제 전용 유튜브 채널은 축제 정보가 제공되는 방송이 정규적으

로 나오고, 온라인커머스는 홈쇼핑 방식으로 진행된다.

업소에서 일정 금액 이상 소비한 고객이 영수증 인증 사진을 제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홈페이지 리뉴얼 댓글을 달거나 온라인 방송을 통해 구매한 고객에게도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축제 전용 유튜브 채널은 앞으로 지속적인 정규 방송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막국수축제와 닭갈비축제가 통합해 열린 지 13회째를 맞는 춘천막국수닭갈비 축제는 독보적인 향토 음식 축제다. 춘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많은 지역축제가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에서 올해는 전혀 새로운 시도를 통해 미래의 축제 방향을 제시하고 침체한 경기에 보탬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춘천시 2024년 유니마 인형극 총회 유치 추진

강원 춘천시가 2024년 '유니마(UNIMA,국제인형극연맹) 총회'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1929년 설립된 유니마는 유네스코 산하 국제인형극 민간기구로 4년마다 총회와 세계인형극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유니마 총회가 열려 차기 장소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내년으로 연기한 상태다.

이에 춘천시는 지난 9월 26일 유니마 총회와 연계해 열리고 있는 세계 인형극 우호도시 연합인 '아비아마(AVIAMA) 총회'에 원격 영상회의로 참가해 유치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아비아마 총회는 당초 벨기에 겐트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프랑스 샤를르빌-메지에르시가 주관하는 영상회의로 열리게 됐다.

총회에는 모두 8개국 27명이 참가해 2019년도 결산보고서 채택과 내년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수 춘천시장은 2024년 유니마 총회에 대한 당위성 등을 설명했다. 또 알제리, 호주, 벨기에 등 유니마 회원국 13개국에 마스크 1만3천장을 발송하기도 했다.

세계적인 인형극 도시를 추진 중인 춘천시는 올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제32회 춘천인형극제를 연 데 이어 40억원을 들여 인형극 특화 창업지원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국제인형극연맹 총회 유치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R O M A N T I C
#춘천 소양강스카이워크

春 日 川 CHUNCHEON

춘천의 낭만을,
Search 하다!

일상에서 지치고 힘들때, 생각나는 춘천!
아무런 부담 없이 떠나는 여행,
우린 그곳에서 여유로움과 즐거움을 느낀다.
자! 낭만이 있는 춘천으로 우리 떠나 보자

